

불교계 NGO 가운데 하나인 '참여불교 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또 하나 생겨나고 있다.

굳이 이름 붙이지면, 요즘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공정무역(fair trade)과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공정무역이란, 간단히 말해서, 원생산지의 노동인력을 너무나 험값에 사들인 자본가들이 오히려 유통과정에서 몇 배의 이윤을 창출하는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려는 취지가 있다.

흔히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값과 생산농장의 커피 값을 비교하며 그 부당성을 설명하는데, 실은 멀리 커피농장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바로 우리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보면 불공정 구조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불교아카데미는,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이 해마다 불교신자로 개종하는 것을 돕고 그들의 신행을 이끌어가는 대표적 불가촉천민(TBMSG 인도지부)를 지원하며 서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특히 불교아카데미 임원 가운데 한 분은 모든 불자들에게 영적(靈的) 고향이라 할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으로, 인도 TBMSG에 기숙학교 부지와 건축비를 보시하기도 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 타전에서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불교

교육·생업 기술교육·복지·인권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이 이번에는 인도 TBMSG에 속한 불가촉천민 가정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인도 불가촉천민의 생산품을 한국에서 우리가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의 불자와 인도의 불자가 넓게 보면 하나의 사방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도와야 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우리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판매시장이 넓어지므로, 인도에서 가난한 도반들의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지원책이다. 또한 직거래를 함으로써 아무도 중간에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 공정무역이라고 할 만하다.

둘째, 총체적으로 제품들을 생산할 때 소모되는 환경자원을 생각하면, 평소 사람들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윤리적으로만 들어지는 생산품을 골라서 구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 TBMSG 공동체의 생산품은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여타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나 가공체제에 비하면, 지구생태에 끼치는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윤리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고도로 가공된 상품들 대

신에 이처럼 자연친화적인 제품들을 구매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환경자원을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또 다른 측면에서 윤리적 소비란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양심적으로 적절히 나누어 쓰는 일이다. 예컨대 승가의 발우공양과 같이 이웃의 필요를 사전에 배려하는 것이다. '나' 개인의 식탐을 누르고, 식구대중과 준비된 음식 양을 우선 고려하며 적절히 자기 몫을 털어먹는 것이 발우공양의 미덕이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생활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소득분배가 양극화된 이 시대의 궁핍한 이웃을 생각하며 더욱 검박한 소비생활로 윤리적 소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도 불가촉천민의 제품은 대부분 상업적 마인드에 따른 화려함보다는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서 각기 고유한 제 값을 지니는 물건들이다.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이 최근에 시작한 공정무역을 통해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필연하게 소비를 부추기는 세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공정하고 윤리적인 소비생활 운동이 우리 불교계를 넘어서 일반사회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지구공동체에게까지 이르러서 궁극적으로는 상호의존하는 연가법적 세계관을 널리 각성시키는 좋은 계기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자승 스님, 역동성 보여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취임 첫 일정으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고, 용산참사 유가족을 찾아 위로했다. 자승 스님이 대내외에 내건 '소통과 화합'에 걸맞는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1년이라는 시간은 한 종단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렇지만 종단을 발전의 도상에 올려놓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의미 있는 기간인데, 무엇보다 종단을 안정시켰다는 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연초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8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로써 출범 초기부터 권력투쟁으로 빠져들었다. 최근에는 직능직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서 '계파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직할사찰 주지 인사고교제는 의욕적으로 도입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직능직 총회의원 선출 후유증은 종도들이 총무원과 중앙총회에서 멀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종단의 기반이며 종무행정의 궁극적인 수혜자이어야 할 종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갖는다면 여러 총책 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4개 계파의 연합이 공고할수록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종도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정은 분명 발전의 디딤돌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역동성을 잠식하는 카르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종도들이 혼쾌히 기대하고 뒷받침하는 총무원이 되어야 한다.

종단 수익사업 신중해야 한다

총책연구소인 불교무설연구소가 지난 3일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사례연구와 사업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설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천주교와 원불교의 사례를 분석해 식품유통, 용품조달, 상·장례, 보험, 건설 등 5가지 분야의 수익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구의 1년 예산액이 3백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종단 재정 형편에서 수익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종단 수익사업을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계획한대로 과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또 기존의

사업체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종단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도 시장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이유로 수익사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한다. 지방의 한 사찰이 그 지역 특산물 생산과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일이 있었다. 실패 사례를 찾아 분석하는 것도 빼놓아선 안 된다.

종단이 하는 수익사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해주고, 바람직한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고하게 설정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만 생각하다가 하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빚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외사출판부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 세상보기



이혜숙

금강대 초대교수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소비

교육·생업 기술교육·복지·인권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이 이번에는 인도 TBMSG에 속한 불가촉천민 가정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인도 불가촉천민의 생산품을 한국에서 우리가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의 불자와 인도의 불자가 넓게 보면 하나의 사방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도와야 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우리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판매시장이 넓어지므로, 인도에서 가난한 도반들의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지원책이다. 또한 직거래를 함으로써 아무도 중간에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 공정무역이라고 할 만하다.

둘째, 총체적으로 제품들을 생산할 때 소모되는 환경자원을 생각하면, 평소 사람들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윤리적으로만 들어지는 생산품을 골라서 구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 TBMSG 공동체의 생산품은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여타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나 가공체제에 비하면, 지구생태에 끼치는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윤리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고도로 가공된 상품들 대

사부대중 칼럼



정운 스님

동국대 외래교수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뜻이다. 범정 스님이 자신의 저서에 제목으로 삼아 유명해진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한번 뿐인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해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자문해본다. 당연히 지금 순간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안마에서 수행할 때, 웨우민 센터의 떠나자 사야도가 이런 말을 했다.

“수행할 때, 똑같은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 같아 권태로운 것 같지만, 단순순간도 똑같은 대상을 알아차림[sati]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매 순간이 새롭고 특별한 순간이다.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내일이, 모레가 소중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순간이 소중한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톨스토이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농부 :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톨스토이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부 :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농부 :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인 휴머니즘으로 보면,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현재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지극한 행복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결국, 톨스토이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함께 하는 사람 뿐만이 아닌 모든 것의 소중함이라.

여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다. A라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불만이 있다면 B라는 사람과 함께해도 만족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주어진 직업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업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법이다.

계절에는 가을이라는 시간적인 결실이 있다. 우리들은 인생의 가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순간, 만족이라는 열매를 영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곧 지금 현재에 행복해하고,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던 누군가와 함께 처해 있던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순간순간의 결실이 진정한 결실이다.

한 해를 살피우게 하는 이 가을, 열매를 맺는 가을의 결실이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더불어 그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 사람에게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결실이 아닌 가 싶다.

화제의 신간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 권 · ㉡ 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 재혈의 과정과 결과가 곧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학의 핵심과제이고 최종의 목표다.
- 그래서 '심룡3년, 재혈10년'의 대명제가 영원한 의미로 끊임없이 전해온 것이라.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고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재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써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 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 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새로운 滿天閣 풀이 1·2 신국판/慧源 羅明赫 지음/각 40,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승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승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처 대사건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일,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풍문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순년 예술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